

【 2018.6.21(목) 강원일보 】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21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2018년  
건설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

오늘 '건설의 날' 행사... 업계 최대 화두는 '생존'

# '변화' 없인 미래 없다 건설은 지금 '혁신'중

# 건설회사가 만든 웹드라마가 유튜브에 뒀다. 현대건설이 제작한 '설레는 직딩청춘, 현대건설'의 에피소드 1편이 지난 11일 공개됐다. 뷰티·패션업계 위주로 확산되던 기업형 웹드라마를 건설업계에서 선보인 것은 처음이다. 현대건설은 토목사업부에서 부서 OJT(실무부서 배치교육)를 시작하는 신입사원 '현대건'이 겪는 에피소드를 코믹하면서도 유쾌하게 담아냈다. 특히 무겁고 딱딱하다는 건설회사에 대한 편견을 깨는 '반전' 기업문화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20일 기준 조회수 3만6800여건, '좋아요' 330여건으로 반응도 좋은 편이다.

▶2018 건설의날 영광의 얼굴들  
관련기사 12·13면

척박한 경영환경 속 생사기로 디벨로퍼 변신·프리콘 실험 등 틀을 깨는 체질 개선작업 박차

오늘(21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의날' 기념 행사가 열린다. 근대적 개념의 건설산업이 태동한 지 어느덧 71년이다. 건설업계는 척박한 경영환경에 갇혀 생존을 위한 변화의 몸부림 중이다.

현대건설의 웹드라마는 건설산업의 기존 이미지를 탈피해 젊은 층과 소통하려는 노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젊은 세대들이 건설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을 벗고 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갖기 바라는 마음에서 웹드라마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건설회사들은 기꺼이 변화를 선택했다. 최근 해외건설 시장의 부진과 국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축소로 영업환경이 나빠진 데 따른 자구책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주회사와 분리되면서 본격적인 디벨로퍼(Developer·부동산 개발회사)의 틀을 갖췄다. 개발운영사업 본부를 신설, 초대 본부장에 박희운 모리빌딩 서울지사장을 앉혔다. 모리빌딩은 일본 롯폰기힐스 등을 개발한 디벨로퍼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도 단순 시공을 넘어 프로젝트 발굴과 기획, 금융조달, 건설, 운영, 관리까지 총괄하는 디벨로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kth@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 건설은 지금 '혁신'중

## '건설' 선진화 방안 이달 발표

기존 생산방식을 깨는 실험에도 과감히 뛰어들고 있다. GS건설은 '시공책임형 CM(CM at Risk)'으로 알려진 '프리콘(Pre-Construction)' 방식으로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의 데이터센터를 건설했다. 프리콘은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가 프로젝트의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하나의 팀처럼 움직인다. 칸막이식 업무 구조를 무너뜨리려는 혁신이다. 대우건설 등도 프리콘팀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공공공사에 기대왔던 중견 건설사들은 민간공사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태연건설, 한양, 대보건설, 한신공업 등은 막한 공사비 탓에 채산성이 떨어지는 공공시장을 떠나 자체사업을 포함한 민간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4·27 남북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등 격동의 한반도 정세도 건설사들에 변화를 요구한다. 현대아산을 비롯해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등이 대북 건설사업의 기회를 잡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정부가 성역으로 여겼던 업역 개편을 포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간 융복합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이 핵심이다. 이미 건설현장에선 BIM(빌딩정보모델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비롯해 VR(가상현실),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을 활용해 공기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건설사들이 배를 쥐는 고통을 감수하며 변화를 선택했지만, 국내 건설환경은 기업들을 버릴 꼴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에 힘겨운 발주 개선과 SOC 투자 확대를 요구해 온 건설업계는 정부의 북북 부담에 반발해 결국 거리로 나왔다. 지난 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대한건설협회 등 22개 건설 관련 단체 소속 건설인 7000여명이 "힘겨운 발주 OUT, SOC 투자 확대" 등을 외쳤다. 공함과 전문 등 범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집회를 연 것은 건설산업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그런가 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국내외 건설현장의 안전 비무담을 높이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의 날'을 맞은 건설업계는 생존과 변화의 길목에서 있다. 김태형기자